김수로와 허황옥

글 | 이한

그림 | 도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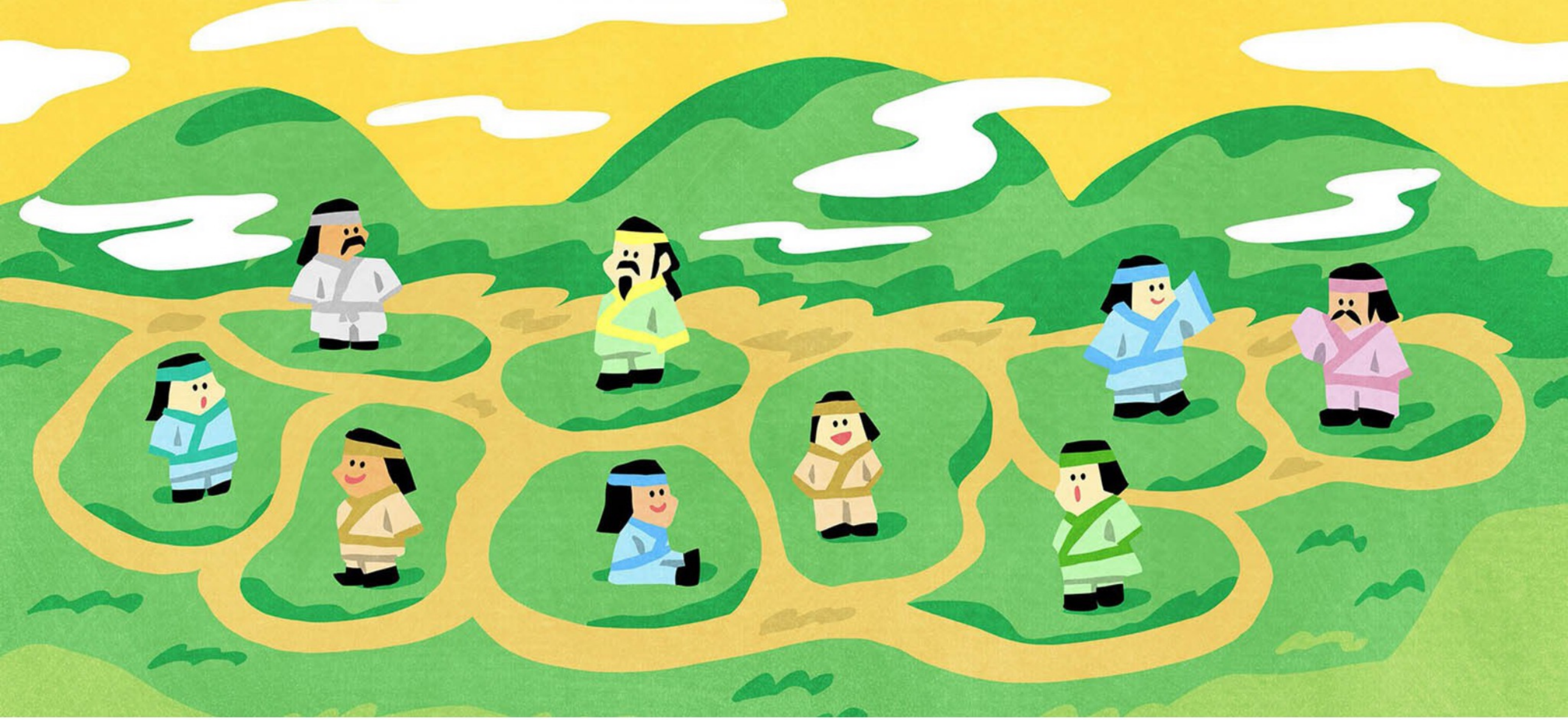
글 | 이한

그림 | 도진영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혜명

목소리 | 윤성혜



아주아주 먼 옛날, 아직 나라도 없고 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들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

“나는 어디에 있지?”

그 목소리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구지산의 흙을 파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러자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알에서 여섯 아이가 나왔습니다. 황금색 알에서 태어났기에 아이들은 김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수로라고 했습니다. 수로는 형제들과 함께 가야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붉은 돛을 단 배가 남쪽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것은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었습니다.
꿈에서 수로왕을 보고 만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로왕은 공주를 맞이하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김수로와 허황옥.

두 사람은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김수로와 허황옥”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